환승 열풍에…은행 간 주담대 유치 경쟁 심화

5대 은행 대출 이동 신청액 1조 5957억원···실적 최대 15배 차 낮은 금리·대출만기 최대 40년·포인트 지급 등 고객 유치 나서

경제침체 및 고급리 장기화로 인해 국내 은행들의 대환대출 경쟁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급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면서 일부 은행에 갈아타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 은행 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국내 5대 은행(NH농협·신한·하나·KB·우리)과 광주은행 등 지역은행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아파트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포함됨에 따라 은행들의

주담대 갈아타기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을 통해 접수된 대출 이동 신청 접수만 9271건, 전체 신청액은 1조 5957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주담대 갈아타기 확장을 위해 더 좋은 상품,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먼저 NH농협은 최저금리를 3%대에서 시작해 공무원·공기업에 재직할 시 금리를 0.1% 인하해주 고 대출만기를 최대 4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주담대를 갈아탄 고객 중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첫 달 대출 이자 중 최대 2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선착순으로 2000명에게 최대 7만 5000원의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은행마다 주담대 갈아타기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은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에 나선 은행 중 실적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8700억원으로, 실적이 가 장 적었던 은행(600억원) 대비 15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각 은행마다 제휴한 대출 비교 플랫폼 수와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내 5대 은행이 지난 9~18일까지 대환대출 인 프라를 통해 주담대 갈아타기를 실행한 실행 건 수 는 92건, 실행액은 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 대출 이동 신청액의 평균은 1건 당 1억 3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분포해 전체 평균 1억 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은행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비대면 주 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받은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중 실행한 건에 대한 1건 당 실행액은 1억 4000만원이었다.

신청 대비 실행 건 수와 금액이 미미한 것은 시행 초기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신청일로부터 일 주일 가량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 별 주담대 갈아 타기 실적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갈아타기를 신청한 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 고객의 이자 절감 규모가 커지고 전반적인 비용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기자 zzang@kwangju.co.kr



설 선물은 한우세트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설 선물로 인기인 한우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월 8일까지 '2024년 설 선물 GIFT 본 판매' 행사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긴급편성

2월29일까지 3000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긴급편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 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자

금대출 지원을 통해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급등 한 원자재 구입자금, 노무비, 체불임금 자금 등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자금대출은 3000억원에 달하는 신규지원 뿐만 아니라, 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에 대해서도 30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편성해 대출을 수월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업체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 원 이내,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5%포인트 를 우대해 전년(0.7%) 대비 0.8%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 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 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 황에도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 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LH, 다가구 매입 요건 완화…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기존 임차인 주거권 보장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다가구주택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피해자 전원이 동의해 사전협의를 신청했다는 조건 하에 해당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수있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개별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 경·공매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매입 요건 변경 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동 의만 얻어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어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해 현 시세의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까지 주거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

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 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전세임대제도 역시 확대 적용한다. 전세임대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와 주택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해주는 제도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부족으로 당장 입주가 어렵거나 경·공매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있다.

이어 LH는 기존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매입 사전협의 신청 접수를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HUG·지자체)에서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간소화 및 내부심의 생략 등 복잡했던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 사회공헌기금 집행 계획 심의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는 22일 광주시 서구 상 무지구 일원에서 사회공헌위원회를 열고 사회공 헌기금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공헌위원회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관내 15개 지사 노·사 대표가 참여했으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조성액은 전년(4600만원)보다 26% 오른 5800만원이다.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2월 설 명절에는 광주시 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상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연금제도 의견을 듣는 '국민연금 자문단'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중선 본부장은 "단순한 현금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본부 내 각종 위원회 행사와 연계, 다양한 방 식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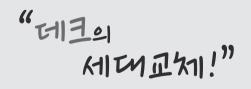
 → 코스피
 2464.35 (-8.39)

▶ 코스닥 839.69 (-2.98)

➡ 금리 (국고채 3년) 3.278 (-0.029)

. 하유(USD) 1338 QN (-N10

♣ 환율(USD) 1338.90 (-0.10)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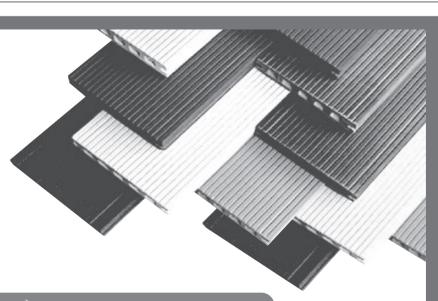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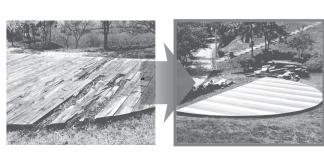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